

장보고에 대한 기록과 장보고의 재당활동과 해상지배권 장악의 배경

최재수*

The Chang Pogo's Activities and Background of His Leadship of Maritime Field

Choi, Jae-Soo

〈목	차〉
1. 9세기의 해상무역 성행의 배경(당나라)	2) 신라의 중앙집권력의 약화와 해민세력의 형성
1) 朝貢貿易	3. 장보고의 대일교역활동
2) 해상실크로드의 출현과 발전	1) 장보고의 교역요청과 일본의 반응
3) 안사의 난과 변진세력의 활거	2) 장보고와 문실궁전마려(文室宮田麻呂)
2. 9세기 황해해상무역의 성행의 배경 (신라)	
1) 나당간의 정치적 동맹관계의 형성	

1. 9세기의 해상무역 성행의 배경(당나라)

1) 朝貢貿易

중국은 先秦시대부터 그들의 나라를 中華라 자칭하고, 주위의 나라들을 東夷, 西戎, 南蠻, 北狄이라고 부르며, 후진국가인 야만민족이라고 멸시하는 中華思想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이런 中華사상 때문에 항상 그들 스스로를 한층 높은 지위

를 설정하고, 그 주변국들은 한층 낮은 지위만 인정하였다. 이런 사상은 해외교역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대외교역도 대등한 무역보다는 服屬國이 宗主國에게 朝貢을 바치면 宗主國은 그 답례로서 賞賜品을 朝貢使에게 내리는 형식을 취하는 朝貢貿易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무역상대국으로서 는 구태여 경제적 손실만 없다면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중국정부의 비위를 건드릴 필요가 없으므로 이 조공무역의식을 순순히 따랐다.

2세기경부터 시작된 이런 朝貢무역은 朝貢國의

* 韓國海洋大學校 教授

이 論文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중국측은 이 조공무역에서 주변국에게 상당히 관대하여, 조공품보다 많은 상사품을 하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조공의식을 존중하는 사절들에게는 상당한 특권과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항만에서 인정되던 蕃坊도 그런 예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상계서, 12-13쪽.

3) 이동운 저 : 동서해상무역사, 유헌출판사, 1984, 9쪽.

정치, 경제력의 강약에 따라서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무역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세기경부터 시작된 이런 朝貢무역은 朝貢國의 정치, 경제력의 강약에 따라서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무역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唐대 이후의 아라비아 상인들은 朝貢儀式을 존중하면서 실제적인 무역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東南아시아 제국은 무역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인 主從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朝貢義務에 보다 치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朝貢品만으로는 사회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정식 朝貢品외에 사절과 수행원들에 의한 附載商品을 허용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매매를 인정하게 되어 민간무역도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외교역은 당시로서는 매우 광대한 지역에 걸치는 교역이었고, 당시의 항해술이나 조종술이 반드시 세계 최고였다고 할 수 없고, 조공무역의 특성상, 조공을 바치는 측에서 사절을 보내는 것이 예의였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중국 선박이 직접 먼 외국까지 나가서 교역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나, 이와 반대로 중국의 교역상대국인 주변국들이 중국의 절대권력에 대한 충성의 표시와 중국의 풍부한 문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사절을 파견하였을 가능성도 많다.

중국의 주변국인 우리 나라와 일본도 중국과의 이런 조공무역이 일찍부터 발전하여왔음은 물론이다. 우리 나라나 일본에서는 거의 정기적으로 遣隋使 遣唐使⁴⁾를 보내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朝貢貿易외의 私貿易도 상당수준 발전하여 신라말기의 張保皋의 해상활동에서 보는바와 같은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 해상실크로드의 출현과 발전

(1) 陸上실크로드의 쇠퇴와 海上 실크로드의 등장

서력기원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중국으로부터 로마로 이어지는 비단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교역은 주로 대상들에 의하여 육로를 이용하여 유럽으로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 교역루트였다. 도중에 페르시아에서는 선박으로 운반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막을 건너서 에집트나 레반트의 항만으로 운반되어, 다시 선박으로 로마나 그 식민지로 운반되었다. 험한 산맥을 넘고, 사막을 건너는 이 교통로를 통하여 중국과 서방제국은 연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漢나라로부터 唐나라시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중국의 제왕조는 이 교통로를 가능한 한 멀리까지 지배하기 위하여, 西域經營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唐의 말기인 8세기경부터 이 육상의 실크로드는 그 중요성이 점점 감소하고, 이를 대신하여 海上交通路의 이용이 보다 빈번해졌다. 이는 唐나라의 西域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된 데도 그 원인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造船技術이나 航海術의 발달로, 해상운송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해졌기 때문이다. “上空에 나는 새 한 마리 없고, 땅에 달리는 짐승 한 마리 볼 수 없는, 망망한 모래밭 위를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해를 보고 겨우 東西를 알고, 흩어진 사람의 뼈를 보고, 이것을 行路의 표지로 삼는다” 고 기술할 정도로 고난으로 가득찬 이 육상의 교통로는 치안의 악화와 더불어 차차 이용이 감소되고, 그대신 해상운송이 이용되게 된 것이다.

육상의 실크로드가 막히면서, 그 노선상에 위치하여 번영을 구가하던 도시들도 퇴락하여, 사막 속에 묻히게 되었으며,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도시들이 사막 속으로 인멸되면서, 그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서를 연결하는 그 교통로의 존재 자체조차 잊혀졌다. 이 교통로의 존재를 사람들이 다시 알게 된 것은 20세기초의 일이다. 그 간에는 1,000년 이상 되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⁵⁾

唐말 이후 長安을 기점으로 하는 육상의 실크로

4) 일본이 遣隋使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 서기 607년이며, 최후의 遣唐使가 파견된 것이 서기 838년이며, 정식으로 遣唐使制度를 폐기한 것은 894년이다. 黒田英雄 著 : 世界海運史, 成山堂, 1979년, 日本編, 176-177쪽.

드 대신에, 廣州나 泉州를 기점으로 하는 해상 실크 로드가 東西交通의 幹線이 되고, 그 교통량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증하였다. 특히 해상의 수송력은 육상의 그것과 비교할 때 문제가 안될 정도로 크다. 그것은 바로 낙타와 선박과의 차다. 어떤 사람의 계산에 의하면 낙타 한 마리가 약 300킬로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으므로, 낙타 30마리로 구성되는 카라반의 운송능력은 9,000킬로그램이 된다. 이에 비하여 당시의 상선은 약 1,000톤급으로서 화물 운송능력이 약 60-70만킬로그램이 된다. 그러므로 선박 한 척의 운송능력은 낙타 2,000마리의 운송능력을 갖는 셈이다. 그러므로 해상 실크 로드는 육상의 그것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의 대량의 화물을 운반할 수가 있었다. 항해의 안전만 확보된다면 해상운송의 우위는 명백하지 않을 수 없다.

(2) 해상실�크로드의 거점항

해상 실크 로드가 정착되자, 뛰어난 商材를 가진 인도인, 페르시아인, 아랍인등 이슬람계 상인들이 몰 밀듯이 중국으로 들어 왔다. 한편 중국 상인들도 대선을 운항하여 인도양이나 페르시아만 방면으로 진출하여,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다. 8세기말에 廣州에 내항한 외국 상선은 연간 약 40척에 달하였다고 한다.⁵⁾ 850년경에 내항하였던 아라비아 상인 스테이만은 중국의 내부사정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또 廣州에는 唐대에 起源을 둔 이슬람 寺院이 존재하는 등 그들의 활동을 지금까지 전하는 증거가 무수히 많다.

唐왕조는 이들 이슬람 상인의 모국인 압바스 왕조와 같이, 해상의 교통과 무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玄宗의 개원년간(713-41)에는 市舶司를 두어, 해외무역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그 중심지는 말할 것도 없이 廣州였다. 이슬람

상인은, 페르시아만의 제항으로부터 출항하여, 인도양을 건너고, 말레이 반도를 돌아서 廣州에 도착하였는바, 그들은 廣州를 칸푸라고 불렀다. 廣府의 음역이다. 그리하여 무역이 더욱 발전하면서 交州, 泉州, 揚州등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

海上 실크 로드를 통한 중국의 대외무역은 이후 시대에 따라 흥망성쇠가 있었고, 또 일시적인 단절도 있었으나, 唐으로부터 5대(唐, 宋, 元, 明, 淸)에 걸쳐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었는바, 특히 宋대에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게 된다.

(3) 陶瓷器 무역의 발달

중국의 도자기는 일본이나 한국은 물론,⁷⁾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들과 인도및 세이론을 넘어 서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의 동해안으로부터 에집트까지 그 분포가 확대되고 있다. 8-9세기의 唐말로부터 14-5세기의 元말 明초의 시대에 제조된 중국산의 도자기가, 인도, 세일론이서, 동아프리카 이동의 지역에서만 70개소이상의 유적으로부터 발견된 것이 알려지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해상교통로를 통하여 이들 상품이 이들 지역으로 운반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일본지역과 신라상인간에 교역된 물품을 보는 과정에서 흥미있는 사실은 중국에서 생산된 “초기무역도자기”가 당상인의 내항(처음으로 보이는 기사가 842년이다)보다 빠른 시기인 8세기말로부터 9세기전반의 북부 구주를 중심으로한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실이다. “초기무역도자기”란 당대후반에서 북송전반기에 중국에서 생산된 도자기중에서, 해외에 수출된 것으로서, 그 종류가 한정되어, 절강성의 월주요계 청자, 호남성 장사요 청자, 하북성 형(邢)주요 양식의 백자의 세가지가

5) 당시 해로여행도 항해술과 조선술의 미숙으로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었으나, 육로여행에 비하면 해로여행이 훨씬 안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6) 18세기말 당시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여 대영제국을 건설하였다고 자부하는 영국이 년간 내보낸 아시아항 선박이 40척을 못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교역규모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C. Ernest Fayle : A Short History of the World's Shipping Industry, 1933, 佐佐木誠治역, 237쪽.

7)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한 도자기와 宋錢등 유물도 이런 무역과정에서 운송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것은 셋트로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에 이르는 지역까지 9세기부터 11세기 전반까지의 기간에 공통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 초기무역도자기는 9세기 중엽이후가 되면 일본의 여러 곳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8세기말에서부터 9세기에 이르는 기간에는 북부 구주를 중심으로한 유적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 시기에는 당상인이 일본과 내왕을 하기 전이므로 당상인 이외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것들이 일본으로 수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라상인에 의한 중계무역으로 일본으로 반입된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흥미 있는 사실은 장보고의 활동거점이었던 전라남도 완도와 가까운 곳인 강진에는 도요지가 많이 산재하고 있는바, 여기서 생산된 도자기가 중국의 월주요에서 장보고시대에 생산되었던 도자기와 유사하다고 보고하면서 이 강진의 도요지는 장보고와 깊은 관련이 있고, 또 당대부터 중국과 도자기에 관한 기술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 점이다.

3) 안사의 난과 번진세력의 활거

(1) 중앙권력의 약화와 번진 세력의 활거⁸⁾

황해해상무역이 성행하게 된 배경으로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당에서 755년의 안사의 난 이후, 난의 평정에 참여하였던 절도사들이 발호하여, 지방분권적인 세력으로서 지방에 활거하였던 점이다.

원래 당의 절도사는 8세기 초두에 처음 제도가 시행되었는바, 741년과 742년에는 변경에 10개의 절도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안사의 난을 계기로 내륙지역에도 절도사가 두어지게 되면서, 군

사 및 민정을 겸하는 강대한 지방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절도사를 필두로 하는 당말의 지방세력을 번진(藩鎮), 또는 방진(方鎮)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4-50개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중앙의 지휘 통제에 승복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독립 세력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일부 번진 들은 중앙의 지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 설령 반기를 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앙의 명령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 멋대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그렇게 해도 당 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 실정이었다.⁹⁾ 중앙집권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였던 소위 조공무역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사무역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구나 번진 세력들이 커지면서 번진 상호간의 힘 겨루기가 불가피하게 되고, 중앙정부의 간섭도 힘이 없으면 면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한 확대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를 위하여는 군사력도 가능한 최대한으로 확대하려고 하였다. 군사력의 확대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관내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만으로는 이런 재정적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다. 특히 당시의 상황은 군사력도 다다익선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도 다다익선이다. 번진은 당연히 재정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관내의 상인들을 격려하여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려하게 된다. 그리고 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상인들의 상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상인에게 관직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 일례로 847년경에 내일하였던 당의 승려 의공(義空)에게 전해졌던 당인들의 서간(書簡)들이

8) 李成市, 東아시아의 王權과 交易, 180-183쪽, 靑木書店, 1997年.

9) 3. 서주 군중소장이란 절 참조, 특히 무령군 절도사 왕지홍은 부절도사로 있으면서 번진안에서 반란을 일으켜 절도사 최군을 몰아내고 자기를 스스로 절도사로 해줄 것을 조정에 요청하였고, 조정에서는 이를 할 수 없이 인정하였다는 것은 이미 당조정은 무령군을 통제할 능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성사(園城寺)에 소장되어 있는바, 그 중에 당 상인들의 서장(書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는 서공우(徐公祐)라고 하는 사람이 무역을 위하여 당과 일본간을 자주 왕래하고 있는바, 그의 직함이 소주아전산장(蘇州衙前散將), 또는 소주압아(蘇州押衙)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보이는 “아전”이라든가 “압아”란 절도사의 관아인 사원(使院)에서 군사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성립된 것이다. “아전”은 사단사령부 같은 것이고, “압아”는 그 부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것이 변진 군내의 지위나 서열을 나타내는 직명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이것이 형해화 되고 명목화 되어 간다. 그렇게 되자 지방의 부자들이 절도사에게 뇌물을 보내서 먼저 아직을 얻고 나서 절도사가 당 조정에 상주하여 조정의 관위를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상인이 뇌물을 주고 아직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로서, 843년에는 소의(昭義)절도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는 중에, 대상인에게 “아전장교”의 직함을 주어서, 제도에 파견하여 교역을 성행하게 하였었다고 한다. 실제로 아전장교의 직함을 가진 당의 상인이 일본에도 온 사실이 있다.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방분권적인 세력을 갖는 절도사체제하에서, 종래에 국가에 의하여 관리되어왔던 대외교역이, 절도사의 관리하로 이행되었고, 절도사들은 재원확보를 위하여, 상인층에게 대외교역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들의 교역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무역이 진행되어, 대외교역의 담당자도 공무역에서 사무역으로 바뀌고 교역이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2) 평로치청절도사 이정기

이러한 변진 세력 중에서도 760년대 이후의 화북지방에서는 평로치청절도사였던 이정기가 대표적인 존재로서, 이 지방에서 압도적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세력에 대하여 자치통감 권 225, 대력 12년(777년) 12월 경자조에는 “조정에

충성을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 법령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관작갑병(官爵甲兵)과 조부형살(租賦刑殺 : 조세와 부역을 부과하고 재판을 하고, 생사를 결정하는 것)를 자기들 마음대로 전횡한다. ----- 이런 상황을 일컬어 중국에서는 이름은 비록 변신(藩臣)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역(異域)의 만맥(蠻貊)과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바, 당 황제의 힘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독립세력으로서 기반을 단단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지배지역은 오늘날의 하북, 산둥, 강소, 안휘, 하남, 호북, 호남 일대에 미치고 있었다고 한다.¹⁰⁾

평로치청절도사의 이씨 일족은 이정기로부터 그 손자인 이사도가 819년에 참수되기까지 삼대에 걸쳐 반세기 동안 산둥반도를 지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씨 일족의 지배는 동지나해 연안부의 해상활동을 촉진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의하면 830년대에 장보고를 비롯한 신라인들이 활약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하북, 산둥, 강소, 안휘 지역이었다. 8세기말의 이정기 세력의 지배가 신라의 해민들에게 좋은 활동무대를 제공하였던 것은 아닐까?

(3) 이정기의 해상무역지배

특히 이정기가 가졌던 직함 중에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라는 직함이 있는바, 이 직함은 해상교역, 특히 신라 및 발해 양국과의 교역 및 이 양지역의 교민들에 관련된 제업무, 그리고 양국과의 사절의 왕래와 관련된 제반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원래 이 직함은 해운과 압신라발해양번사라는 두 직책을 합친 복합직함이다. 그 중 앞의 해운이라는 직함은 해상을 통하여 남방지역에서 생산된 양곡을 북방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의 군량미로 운반함에 있어 해상항로를 통한 운반책임을 지는 것이며, 원래는 안록산에게 주어졌던 직함이다. 남방의 양곡을 군량미로 북방으로 운송하는 운송경로는 운하를 이용하는 경로와 해상을 이용하는 두 경로가 있었다.

10) 資治通鑑同條

압신라발해양변사는 765년에 이정기가 후회일을 내물고 치청평로절도가 되었을 때, 그에게 같이 부여된 직함이다.¹¹⁾ 이정기가 들어서면서 발해신라 양변사라는 직책이 추가되었는가 하는 것이 흥미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정기가 한반도 출신으로서 한반도와 무역을 하는 등 긴밀한 연계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가 관장하는 산동반도 일대의 해안에 한반도와 일본으로 향하는 해상교통의 근거지들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제조정할 필요가 있고, 양국으로 오가는 사절들도 대부분이 등주등 그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²⁾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무역을 이야기 할 때는 한반도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정기에게 주어졌던 직함이 신라 및 발해만 치청하고 일본을 제외하였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 한반도와는 달리 일본과의 교역은 양자강 하류지역인 소주나 명주를 중심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 엔닌이 탕던 견당선도 양자강 유역으로 도착하였고, 다른 대일 교역선도 명주에서 많이 발착하였던 기록이 있다.

그러다가 10년 후인 대력 10년(775년)에는 이 직함이 해운압신라발해양변등사(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로 바뀐다.¹³⁾ 다시 9년 후인 흥원 원년(784년)에 이정기의 아들 이납 대에 와서는 해운 앞에 육(陸)자를 붙여 육해운 압신라발해등사가 된다.¹⁴⁾ 앞의 775년의 해운을 추가한 것은 군량미의 해상운송을 책임지도록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뒤에 양변사라는 말 중 양변(兩蕃)과 사(使) 사이에 등(等)자를 추가한 것은 신라와 발해뿐만 아니라 일

본등 기타지역과의 교역도 그 관할지역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9년 후에 육(陸)자를 추가한 것은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육상운송에 관한 책임도 평로치청절도사에게 맡겼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정기의 평로치청절도사는 황해의 해상무역뿐만 아니라 육상운송과 연안 해상운송 등 중국의 동북지방의 교통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 조정하는 막강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직책은 그후 이사도의 난이 평정된 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업무가 무엇을 하는 업무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 엔닌의 일기에서도 발견된다. 엔닌이 적산의 법화원에 머물면서 오대산 순례의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구당신라소의 압아 장영을 통하여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으로 거슬러 여행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등주도독부에서 압양변사¹⁵⁾에게 최후적인 상신을 하고 있으며,¹⁶⁾ 여기서 허가하자 엔닌 일행은 비로소 안심하고 당나라 안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업무는 황해의 해상교통과 교역을 통제 조정하는 업무인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신라발해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를 그 업무범위로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정기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그후로도 어떤 형태론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업무의 일선 실무기관의 상당부분을 신라인과 신라교민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의 예로서 적산의 구당신라소의 책임자로 있는 장영의 직명을 엔닌은 평로군절도동십장 겸 등주제군사압아라고 명기하고 있다.¹⁷⁾ 이정기는 평로치청절도사였다. 이는 크게 평로와 치청으로 나뉘게 되는바, 그 중의 하나인 평로군산하의 한

11) 唐方鎮年表, 平盧, 永泰 元年條.

12) 등주에 신라와 발해의 사신을 영접하기 위한 신라관과 발해관이 있었다.

13) 唐方鎮年表, 平盧, 大曆 10年條.

14) 위의 史料, 興元 元年條.

15) 여기서의 양변사는 신라발해양변사를 줄인 말일 것으로 본다. 신복룡번역, 입당구법순례행기, 147쪽, 정신세계사, 1991년.

16) 開成 五年(840) 三月 十一日條.

17) 845년 8월 27일조.

직책인 평로군절도 동십장에 장영이 있었다. 이것은 이정기와 그의 후계자들이 가지고 있던 평로군절도사라는 직책이 장영이 속해 있는 조직의 상급기관이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 한가지 겸직직명은 등주제군사압아(登州諸軍事押衙)다. 이 직명 속에 제군사(諸軍事)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직책은 단순한 지방행정조직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군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직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2. 9세기 황해해상무역의 성행의 배경 (신라)

1) 나당간의 정치적 동맹관계의 형성

당나라의 건국초기, 당왕조는 한반도의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과 “영원히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서로의 강토를 보존하기를 희망하였다. 무덕(武德) 7년(624년) 2월 고구려왕 건무(建武)를 요동군왕(遼東郡王)으로, 백제왕 여장(餘璋)을 대방군왕(帶方郡王)으로, 그리고 신라왕 김진평(金眞平)을 낙랑군왕(樂浪郡王)으로 봉하였다. 그후에 고구려가 신라, 백제가 당나라와 내왕하는 것을 방해하였지만, 당나라는 여전히 삼국을 똑 같이 대하는 외교정책을 고수하였다. 다만 그후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늘 신라를 침범하므로 당은 등거리외교정책을 바꾸고 전적으로 신라를 지지하게 되었다. 당대의 전 시기를 통하여 종합해 본다면 당과 신라와의 관계는 평화와 선린우호를 바탕으로 한 좋은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특별히 8-9세기가 되면서 양국간에는 정치, 경제, 문화 및 항해관계 등에서 전에 없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신라에서는 유명한 장보고와 같은 대항해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1) 정치관계

당과 신라와의 정치관계는 아주 좋았다. 당은 신라의 왕공귀족(王公貴族)들의 책봉을 통하여, 신라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사료의 기록에 의하면 당고조 무덕년간(武德年間, 618-626년)부터 당문종

(唐文宗) 대화년간(大和年間, 827-835년)까지 200여년간에 신라의 수장(首領) 17명중 16명이 정식 즉위전에 당나라의 책봉을 받았다. 예를 들면 김진평(金眞平)과 선덕(善德), 진덕(眞德)은 각각 당고조와 태종에 의하여 낙랑군왕(樂浪郡王), 주국(柱國), 신라왕(新羅王)으로 책봉받았다. 또 선덕여왕 때 국상(國相)이었던 이찬간(伊贊干)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왕은 당태종으로부터 특진화좌무문장군(特進和左武門將軍)으로 책봉받았으며, 김춘추와 그의 아들 법민(法敏)은 모두 당고종에 의하여 신라왕(新羅王)으로 임명되었으며, 여기에 개부의동삼사, 봉낙랑군왕(開府儀同三司, 封樂浪郡王)을 수여받았다. 정명(政明)과 그 아들 이홍(理洪), 흥광(興光)은 당고종과 무칙천(武則天)으로부터 보국대장군, 행표도위대장군, 계림주도독(輔國大將軍, 行豹韜衛大將軍, 鷄林州都督)으로 책봉되었으며, 흥광(興光)의 족인(族人)인 김사란(金思蘭)은 당현종에 의하여 태복원외경, 개부의동삼사, 영해군사(太僕員外卿, 開府儀同三司, 寧海軍使)로 책봉되었고, 승경(承慶)과 그 동생 헌영(憲英), 그리고 조카인 건분(乾分)은 당현종으로부터 개봉의동삼사(開封儀同三司), 검교태위(檢校太尉), 지절대도독계림주제군사(持節大都督鷄林州諸軍事), 겸지절충영해군사(兼持節充寧海軍使), 신라왕(新羅王)으로 책봉받았다. 신라가 이런 책봉을 받으면서 당의 정치적 지지를 받아 얻은 것이 한반도내에서 전삼국을 통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후의 외교관계의 전개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2) 외교관계

신라는 당과의 밀접한 정치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대당납공(對唐納貢)

신라의 당나라에 대한 납공(納貢)은 무덕(武德) 4년(621년)에 시작되었다. 당고조는 신라를 장려하기 위하여 친히 신라사자(新羅使者)를 접견하여 위문하였으며, 직산기시랑경문소(直散騎侍郎

庚文素)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새서(璽書)와 그림병풍, 그리고 비단 300필을 보냈다. 그후 나당 간에는 조공사절의 왕래가 끊이지 아니하였다. 정관(貞觀) 5년(631년) 신라는 당나라에 미녀(美女) 두명을 보냈으나 당태종은 이를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였다. 당고종때에 신라의 조공사자는 “前後相屬”하고 “가지고온 물건이 각번진중에서 최고였다.”¹⁸⁾ 무칙천(武則天)시기 주변의 소수민족정권이 그가 황제가 된데 대하여 큰 반감을 나타냈으므로 신라의 조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당현종 시기에는 신라는 여러차례 조공하였다. 조공한 물품은 기재된 것만 해도 과하마(果下馬), 우황(牛黃), 인삼(人參), 두발(頭發), 조하주(朝霞綢), 어아(魚牙), 남주(納綉), 루웅령(鑲鷹玲), 해표피(海豹皮), 금은(金銀)등이다. 당 대종(代宗)시기에 현영(憲英)부자는 견당사의 파견을 끊임없이 하였으며, 당 덕종(德宗), 순종(順宗), 헌종(憲宗), 목종(穆宗)시기가 되면 신라의 조공(朝貢)대열이 줄을 이었다.

대당조배(對唐朝拜)

당 고조(高祖)로부터 당 무종(武宗)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신라왕들이 사신을 파견하여 당나라에 와서 조배(朝拜)하였다. 조배의 목적은 첫째로 당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고, 둘째로는 서로정보를 교환하고, 셋째로는 신라의 중대사를 당 황제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희원년(永徽元年, 650년) 신라왕 진덕은 백제를 공격하여 파한후 그의 동생 춘추의 아들 범민을 장안으로 보내서 당 고종에게 보고하게 하고, 태평송(太平頌)을 수놓은 금기(錦旗)를 당 고종에게 보냈다.¹⁹⁾

신라는 때로 조배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당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서적들을 구해갔다. 예를 들

면 수공(垂拱)2년(686년) 정명(政明)은 사신을 파견하여 조배하고 “그러므로 당조의 예의 방면에 관한 서적 한부와 여러 가지 문장을 요구하였다(因上表請唐禮一部并雜文章).” 위와 같이 신라는 조배를 아주 중시하였는데 안사의란이 일어나 당 현종(玄宗)이 사천으로 도망하였을 때, 신라왕 현영(憲英)은 여전히 사절을 파견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성도(成都)까지 가서 조배하였다.²⁰⁾

왕족이나 사신의 당조정에서 숙위(宿衛) ———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보면 신라에서 당으로 와서 숙위한 사람은 신라왕의 친족이거나 신라의 사신들이었는바, 그들중 일부는 직접 당나라로 와서 숙위하고 다른 사람들은 숙위를 겸한 사절이었다. 예를 들면 개원(開元) 20년(732년) 흥광(興光)의 조카 지염(志廉)은 당나라에 공물을 바치러와서 숙위(宿衛)하였다. 또 보력(寶歷) 원년(825년)에 “그의 왕자 김흔(金昕)이 와서 숙위를 겸하였다.” 개성(開成) 원년(開成元年, 836년) “왕자 김의종(金義琮)은 사은하러와서 숙위를 겸하였다.”²¹⁾ 이들이 모두 신라 왕실의 직계친족(直系親屬)들이었다. 신라의 사신들이 와서 숙위한 예는 김사란(金思蘭)이다. 당회요(唐會要) 신라조에 기록하기를 “사반(思半)은 원래 신라사절의 수행인으로서 공손하고 예의에 밝아 남아서 숙위를 지내고, (개원 21년, 732년)이 되어 지방의 관리로 되었는데 스스로 결정하게 하였다(思半本新羅之行人, 恭而有禮, 因留宿衛. 及是(開元 21年, 732年)委以出疆之任, 且便之也)”라고 하였다.

2) 신라의 중앙집권력의 약화와 해민세력의 형성²²⁾

9세기에 현저해지기 시작하는 동아시아의 교역 활동을 담당하였던 계층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18) 당전요(唐全要) 권(卷)95, 신라조(新羅條).

19) 구당서, 신라전(舊唐書, 新羅傳).

20) 구당서, 신라전(舊唐書, 新羅傳).

21) 唐會要(당회요), 권95, 신라조(新羅條).

그들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생겨난 것일까? 특히 신라본국에서 보다 당과 일본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인 신라인들의 출현배경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시기의 신라의 국내사정에 많이 연계 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집중정책을 견지하던 경덕왕이 764년에 죽고, 혜공왕이 즉위하자 반란이 빈발하여 780년에는 혜공왕이 반란의 와중에서 죽고 만다. “삼국사기”는 혜공왕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하대”(下代)로 규정하여, 이 시점을 커다란 분수령으로 삼고 있는바, 실제로도 신라는 왕도에서의 격렬한 왕권쟁탈전을 바탕으로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틈에서 지방을 무대로 하는 귀족이나 농민들의 반란이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라왕권이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미 국가의 대외활동에 종사해 왔고, 왕권하에 조직화되었던 해민(海民)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개시되었거나,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집단이 출현하였던 것은 아닐까?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신라로부터 일본으로 대량의 난민이 일본이나 당나라 연안으로 찾아오는 것이 8세기말로서, 그 실태들이 한중일 삼국의 사료에 조금씩이나마 남아 있다. 그리고 9세기에 이르면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지방에서의 동요가 더 심각해진다. 삼국사기에 이런 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815년 서변주군에서 대기근, 도적이 봉기하다.

816년 기근을 만나서 170명이 먹을 것을 찾아 당의 절동으로 가다.

819년 초적(草賊)이 각지에서 일어난다.

820년 봄, 여름의 가뭄으로, 겨울에 기근이 일어난다.

821년 봄, 기근으로 아이들을 파는 사람이 나타난다

822년 응주 주도독 김현창이 남서부의 제주를 석권하고 반란을 일으키다.

이상과 같이 거의 매년 이어서 천재와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천재와 지방에서의 반란은 그 나뉠이로 여러 가지 동요를 수반하는바, 816년 기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살길을 찾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혹은 일본으로 건너와 살길을 찾기도 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 반란들 중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반란 지역의 대부분이 서쪽으로, 응천주를 중심으로 한 서남지역이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서남 해안은 그전부터도 해적의 거점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 지방을 거점으로 한 해적들이 이 곳 연안부나 도서지방에 사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 해상생활자(해민)였다고 한다면, 남서지역의 동요에 따라 이들 해민이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장보고는 젊어서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의 하나인바, 도당시기가 대체로 9세기초로 보인다. 그후 9세기에 들어서면서 한반도로부터 유민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입되자, 828년에 장보고 자신이 흥덕왕에게 고하여 노예매매를 금지시킬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장보고의 출신성분이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의하면 왕도의 군신들이 장보고를 “해도인”이라고 호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년은 능히 바다 밑을 50리나 걸을 수 있다고 한 점등으로 미루어 이들이 해민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가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나서 정년은 연수현에서 출고 배고픈 생활을 한다. 이 연수현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엔년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의하면 이 곳에 신라인들의 집단거주지였던 신라방이 있었고, 신라인들의 대부분이 해상교역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장보고의 부하로서 대당교역에 종사하던 최훈이 장보고 사후에 이곳으로 도망을 와서 지냈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이곳이 신라인들의 해운활동의 하나의 거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를 요약한다면 8세기말에서 9세기 초기까지의

22) 李成市, 앞의 책, 177-180쪽.

기간 동안에 신라의 지방사회가 동요되면서, 해변 지역에 살고 있던 해민들이 신라의 동요로부터 피하여 스스로의 살길을 찾아 해외로 진출하여 자율적인 활동으로 해상교역체계를 구축해 나갔다고 추측할 수 있다. 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신라는 이미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하여 장보고와 같은 사람에게 해민들의 통제를 맡기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된 것이다.

3. 장보고의 대일교역활동²³⁾

1) 장보고의 교역요청과 일본의 반응

장보고가 청해진을 근거로 해서 나당일(羅唐日) 삼국간의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음은 학계가 거의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특히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곳곳에 나와 있는 재당신라인과 장보고, 그리고 장보고 휘하의 무역상인들의 활동에 관련된 단편적인 기사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장보고가 직접 무역을 하였다는 기록은 당나라나 한국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다행히 일본측의 사료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 장보고가 직접 무역을 하였다는 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으며, 당시의 무역의 성격을 규명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다.

장보고는 840년(承和 7년) 12월에 일본의 대외교역창구였던 대재부에 사자 이충을 보내 공물을 헌상하면서 교역을 할 것을 요청한다. 대재부는 이러한 요청을 받고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처리방안을 중앙의 태정관에게 물었다. 이에 관하여 태정관으로부터 대재부에 내려진 지시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신하인 장보고의 헌진물은, 전에에 맞지 않으므로, 이것을 돌려보내고, 그들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진서(鎭西)로부터 추방할 것”을 명령한다.²⁴⁾

이런 지시를 한 두 달 후에 태정관은 다시 대재부에 지시하여 “가지고 온 화물은, 공정가격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인에게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²⁵⁾

위 내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일단 교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즉시 추방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이 명령은 두 달 동안이나 시행이 보류된다. 그러다가 두 달 후에는 다시 공식으로 무역하는 것은 안되지만 민간과의 교역은 대재부의 감독하에서 하도록 허용한다. 다시 말하면 사무역을 사실상 허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당시에는 일본의 귀족사회내부에서 외국의 사치품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있어 이를 도저히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달 후에는 대재부의 엄격한 감독하에 거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대재부의 관리하에 두기는 하지만 이미 신라상인과 민간간의 교역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당시 일본은 신라와 외교관계를 폐쇄시키고 있었으나, 平安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신라와의 私貿易은 묵인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비록 사치품을 중심으로 한 무역이긴 하지만 신라와의 사이에는 대량으로 광범위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⁶⁾

2) 장보고와 문실궁전마려(文室宮田麻呂)

장보고와 교역하던 사람으로서 문실궁전마려(文室宮田麻呂)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승화(昇和) 7년(840년) 4월에 축전수(筑前守)가 되어 다음해 1월까지 9개월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840년 12월에 장보고가 보낸 사자 이충이 대재부를 찾아와서 조공을 하고자 하였을 때,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진서(鎭西)로부

23) 李成市, 앞의 책, 168쪽-170쪽.

24) “續日本後紀”, 卷9, 承和 7年 12月.

25) “續日本後紀”, 卷 10, 承和 8年 2月條.

26) 井上秀雄 著: 古代朝鮮, 日本放送出版協會, 1983, 246쪽..

터 추방을 명하였으나, 다음 해 2월에는 현지에서의 교역만은 인정하였다. 나중에 판명된 것이지만, 이 동안에 축전수문실 궁전마려는 이충과 접촉하여, 당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충에게 상품대금을 미리 전도금으로 건넸었다.²⁷⁾

그러나 이충이 신라로 돌아가 보니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해(841년) 11월에는 암살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충은 난을 피하여 일본으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다음해(842년)정월에 장보고의 난을 평정한 염장(閔長)은 그 부하(李少貞 등)를 일본(筑紫大津)에 보내 장보고의 잔당들을 잡아서 돌려 줄 것과 이충이 가지고 온 화물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전축전수였던 문실궁전마려가 당나라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미리 전도금을 건넸다는 사실과, 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된 것을 안 문실궁전마려가 다시 되돌아온 이충의 화물을 차압하였던 사실이 발각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조정의 추궁에 대해 궁전마려는 장보고가 살아있을 때, 당나라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전도금을 건네고, 후에 당의 많은 상품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장보고가 돌연 사망해버려서, 약속한 화물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으므로, 이충 등의 화물을 차압한 것이라고 답하였다.²⁸⁾

궁전마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계약불이행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충의 화물을 압류한 것이므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일본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폭력적인 약탈행위는 “회역(廻易)의 편(便)을 빼앗고, 상가(商賈)의 권리를 해하는 것”(무역의 편익이 없어지고, 상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므로 부당한 행위라 하여, 압류한 물건을 되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자기의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궁전마려는 조정의 조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모반을

피하다가 843년 12월에 밀고로 체포되어 유배를 가고 말았다.

이 모반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궁전마려가 세토나이카이의 교통의 요지인 난파에 따로 저택을 가지고, 서국지방(西國地方)에 폭넓게 교역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장보고의 죽음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의 하나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신라상인과 일본의 관리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던 교역활동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라상인과 일본의 중간계급의 관리들간에 당나라의 상품을 일본에 파는 단순한 거래관계만이 아니고, 이에 더하여 대금을 먼저 주고, 후에 당나라의 상품을 받는 일종의 신용거래 방식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무역이 어느 정도 성행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²⁹⁾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라나 당에서 수입된 화물을 일본국내로 유통시키는 교역 네트워크가 세토나이카이의 요지들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역은 하나 같이 조정의 공무역과는 관계없이 정부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이미 상류사회를 중심으로 당이나 신라로부터 수입되는 사치품들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는 금령으로 금하면서도 사무역을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조정(일본)은 외교관계를 폐쇄시키고 있었으나, 平安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신라와의 私貿易은 묵인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비록 사치품을 중심으로 한 무역이긴 하지만 신라와의 사이에는 대량으로 광범위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7) 중앙정부의 방첩과는 달리 얼마나 많은 사치품수요가 일본상류층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28) 續 日本後記 卷 10.

29)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시대에는 운송을 담당하는 선주와 상품을 매매하는 상인의 기능도 미분화된 상인선주(merchant carrier)가 일반적이고, 상품의 매매도 직접 현금매매나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신용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張保臯와 宮田麻呂간의 거래방식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도화된 상관습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30) 井上秀雄 著：古代朝鮮，日本放送出版協會，1983，246쪽.